

로마서 묵상 15
(12/17/2020, 목)

찬양: 463(518)(신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2:25-29

말씀에 대한 이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표면적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하며,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외적 징표로서의 율법과 할례의 무익함. 25-26 절 - 25.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26.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는 그들의 선민됨을 드러내는 표징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 외적으로 유대인의 표징을 가지고 있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대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외적 준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25 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할례를 받은 자는 전체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26 절에서도,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율법을 충실히 지키면 할례를 받은 사람과 같이 율법의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천을 그만큼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27 절을 통해서도 전달합니다. 27 절 -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이 구절에서, 만약 율법을 모르며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유대인 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면, 율법을 받았다고는 하나 지키지는 않는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조상대대로 선민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와 함께 이 말씀 속에는, 현실적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다는 생각도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 할례를 받은 선민이므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경우든 잘못되었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바울의 말씀은 28-29 절에서 더욱 강렬하게 선포됩니다. 28-29 절 - 28.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표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표면적”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

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면적”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감추인 것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내적인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두 가지의 보이는 징표인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그 두 가지의 진정한 가치와 본질을 실천하지는 못하는 문제, 그리고 그들의 “표면”과 “이면”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29 절) 라는 바울의 말씀은, 외적인 징표가 아니라 그 심령의 진정한 변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참된 변화를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강조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과 구별됨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성결하게 변화를 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의미합니다.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는 말씀은, 마음의 할례는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은 율법의 본질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외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겉으로만 내세우는 표징이 아니라, 그 내면이 진정으로 바뀌어 저야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논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이면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하며, 그 새로워짐이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교회에 외적으로 출석만 하고 예배에 의식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영적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29 절)고 말씀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감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삶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2.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진정한 할례가 일어나게 하시고, 늘 회개하고 고침과 변화가 있는 성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마침내 백신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